삼성,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韓 누적 판매 1만대 돌파

빨래·건조 한 번에 가능해 인기
공간 활용성·맞춤형 AI 등 만족↑
연간 에너지 비용 업계서 가장↓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대치점에서 국내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한 '비스포크 AI 콤보'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 2월 국내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가 국내 히트 펌프 방식 세탁건조기 시장에서 처음으로 1만대 고지에 올라섰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비스포크 AI 콤보는 출시 3일 만에 1000대, 12일 만에 3000대에 이어 지난 주말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가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점과 설치 공간을 약 40%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 용량 25㎏, 건조 용량 15㎏의 대용량으로, 킹 사이즈 이불 빨래도 가능하다.

특히, 일체형 제품이면서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으로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구현했다. 셔츠 약 17장인 3㎏의 빨래를 건조할 때 드는 건조 시간과 에너지 사용량은 일반 건조기와 유사한 셈이다. 연간 에너지 비용은 5만1000원으로 국내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 건조기 기준으로 비교하면 삼성전자 20kg 용량 건조기의 1회 건조 시 소비전력량은 1989.1Wh, 1kg당 소비 전력량은 147.5Wh, 연간 소비전력량은 318.3kWh로, 이는 국내 업계 최저 수준이다. 연간 에너지 비용 역시 5만 1000원으로 국내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비스포크 AI 콤보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AI 절약모드'까지 AI 성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다른 가전 제어도 가능하며 7형 풀터치 LCD 패널에 컬러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어도비, 비디오 생성형 AI 개발 박차

분당 3달러에 영상 구입 시작

어도비가 인공지능(AI) 텍스트-비디오 생성형 AI 구축을 위한 비디오 조달에 나섰다. 어도비의 합법적 AI 학습 데이터 구입이 현 저작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 AI 업계에 경종을 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11일 어도비가 사진가 등 주요 작품 제작자들에게 120달러의 가격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을 촬영한 비디오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어도비가 요구하는 영상의 구체적인 자료는 발, 손 등 신체 부위 뿐 앙니라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클립과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내용으로 과도한 노출 및 폭력성과 선정성 없는 콘텐츠다.

지난 1년간 어도비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함해 창의적인 전문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에 생성형 AI 기능 추가에 공들여왔다. 최근에는 프롬프트(명령어)를 이용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자사 소프트웨어에 이식했다.

다만 현재 어도비는 동영상 생성형 AI의 위험성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동시에 해당 기술의 직접적인 SW 활용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은 만큼 개발 단계에서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어도비의 대규모 학습 데이터 셋 구매는 과거 오픈AI가 공개한 동영상 생성형 AI 'SORA'를 비롯해 다양한 생성형 AI에서 발견된 저작권 위반 사례와 비교된다. 실제로 현재 오픈AI의 방대한 학습 데이터셋의 출처는 기밀사항으로 공개된 바 없다.

오픈AI 최고 기술책임자 미라 무라티는 지난달 WSJ와 인터뷰에서 "SORA가 학습한 데이터셋의 출처는 밝힐 수 없다"며 "구글의 유튜브와 메타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가 생성한 비디오에 관한 교육을 받았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LG, 스마트병원 사업 '속도'

GE헬스케어·한국MS와 업무협약
디지털 플랫폼 등 첨단 솔루션 제공

(왼쪽부터) 김용덕 GE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 장익환 LG전자 BS사업본부장,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LG전자

LG전자가 스마트병원 솔루션 사업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스마트병원 공동 발굴 및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병원은 병원 운영과 진료에 IT 기술을 접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병원이다. 컨설팅 기업 CMI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병원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약 41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533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병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솔루션 ▲안정적인 IT 의료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등 스마트병원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협업한다.

LG전자는 현재 진단용·수술용·임상용 등 총 13종의 의료용 모니터를 비롯해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중진공, 中企 저탄소 경영 전환 돕는다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 전환 촉진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 혁신, 고효율 설비개체 등 중소벤처기업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형, 주조 등 뿌리기술 14개 업종과 화학제품, 식품 등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이다. 1차 서면과 2차 대면으로 구성된 기술성평가 및 현장확인을 거쳐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정기업 대상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구축지도 컨설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원기업의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제어·계측 시스템 및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교체까지 제공한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25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지멘스 DISW, 韓 스타트업 협력 강화나서

오영주 장관, 토니 헤멀건 CEO 면담
창진원·지멘스 DISW간 협약 재체결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2번째부터)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병준 지멘스 DISW 한국 지사장, 최열수 창진원장 직무대행, 토니 헤멀건 지멘스 DISW CEO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진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멘스가 '지중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430억원을 투입, 스타트업 25곳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지멘스 DISW)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갖고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개사 안팎의 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지중해'는 '지멘스와 중기부가 함께 힘을 모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지중해 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CJ대한통운, 패키징 신기술로 '물류 혁신'

앱스 등 고객사 물류 적용

CJ대한통운이 첨단 패키징 기술로 물류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내 '패키징혁신센터(PIC)'가 선보인 차세대 신기술을 연이어 상용화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택배 상자 내 제품 파손 우려까지 차단하는 등 물류 혁신을 이끄는 모습이다.

CJ대한통운은 패키징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의류 특화 폴리백 패키징 설비 '앱스(APPS) 어패럴 자동 포장 시스템'과 '원터치 박스&송장'을 최근 고객사 물류에 적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앱스는 원단 위로 의류를 일렬로 배열해 이동시키면서 감싼 뒤 포장까지 자동 마무리하는 설비다. 앱스를 이용하면 자동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뿐 아니라 재활용 플라스틱(PCR) 포장재, 가위가 필요 없는 '이지컷(easy-cut)' 적용 등으로 분리배출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패키징혁신센터는 경기 화성 동탄 물류단지에 조성한 연구조직이다. 내부에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압축·적재·진동 시험을 위한 패키징 안전성 연구실 ▲운송 과정의 온·습도 환경을 재현한 물류환경 시험 연구실 ▲자동화설비 검증실 ▲샘플 제작실 등이 들어서 있다.

/김승호 기자